

임실 산타축제, 대형 눈썰매장 첫선

21~25일 개최... 치즈 쿨링·트리 만들기·빙어 잡기 체험 등 행사 다채

임실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024 임실 산타축제'가 올해 더욱 차별화된 이벤트를 선보이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산타축제 기간인 3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1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축제의 인기를 실감한 만큼, 올해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기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맞춰 작년보다 더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더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이벤트 광장에서 선보여지는 높이 5m 길이 50m의 대형 눈썰매장을 조성한다.

눈썰매장은 5세 이상 어린이와 가족, 연인 모두 눈썰매를 타며 짜릿한 스릴과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끽하게 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겨냥한 치즈 쿨링과 켈리지 에어바운스, 가족 트리 만들기, 가족 케이크 만들기 등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쌓인 눈을 활용해 눈오리 만들기 등 체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돌채를 이용한 빙어 잡기 체험도 마련,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테마파크 메인 안내소 등 행사장 곳곳에 있는 산타들이 보드게임 및 민속 놀이, 뽑기 등을 진행하여 축제장을



임실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024 임실 산타축제'가 올해 더욱 차별화된 이벤트를 선보이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임실 산타축제 모습.

찾는 방문객 모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등 축제의 재미를 더할 이벤트도 준비했다.

치즈테마파크 랜드마크인 치즈캐슬 앞 10미터 높이의 웅장한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눈사람, 사슴 조형물 등의 겨울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포인세티아 장식 등으로 치즈테마파크의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치즈테마파크 내에 설치한 야간 경관조명으로 밤마다 다채로운 빛 연출과 아름다운 조명으로 야간 볼거리와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평소 할인을 하지 않는 임실N치즈 등 각종 유제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지난해 예상 밖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정체가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임실N치즈축제 못지않은 전문 교통인력을 투입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관리 등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3일간 11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큰 인기를 끈 만큼, 올해는 5일간으로 늘렸고,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 등도 많이 준비했다"며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산타 축제에 오셔서 한겨울의 멋진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많이들 담아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사람 '여암 신경준' 조명

12일 순창군립도서관서 학술세미나 개최

순창군 출신인 여암 신경준(1712~1781)의 업적을 되짚어보고 이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콘텐츠로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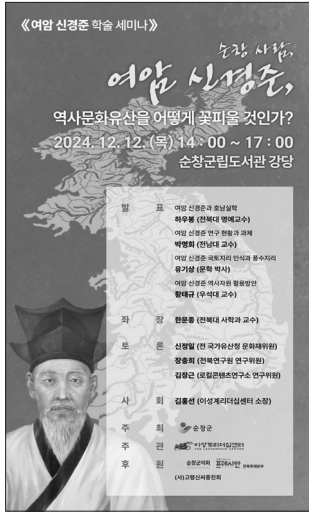
순창군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순창사람' 신경준,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지리학과 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여암 신경준 선생을 다시 집중 조명하면서 순창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현황을 총망라해 보고 신경준의 국토지리 인식,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는 하우봉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여암 신경준과 호남실학'에 대해, 박명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여암 신경준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유기삼 박사(전 고창군수)가 '여암 신경준 국토지리 인식과 풍수지리'를, 황대규 우석대학교 교수가 '여암 신경준 역사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한문준 전북대학



교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경정 전국자유산청 문화재위원과 장중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장근 로컬콘텐츠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이성계리더십센터가 주관하며 순창군의회와 고령신씨 종친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서부산림청 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5일, 서부지방산림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완강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용에는 각종 사례 및 동영상상을 활용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실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 시 비상 탈출을 위한 완강기 사용법 실습도 병행해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서부청 박종원 직원은 "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 참여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고3 수험생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이 지난 5일 관내 고3 수험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다'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지난 3년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남은 고3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힐링의 시간으로 꾸려진 활동은 여가문화체험, 직업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일모찌 만들기, 퍼스널항수만들기 체험으로 그동안 대학교 입시 준비로 지쳐 있던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놀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심 민 군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휴식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고3 일정을 잘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최우수상'

기초지자체 전국 1위 쾌거

순창군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순창군은 최우수상을, 경북 성주군과 광주 남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른 2023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순창군은 지역특화 사업인 아동행복수당과 온종일 돌봄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행복수당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으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내년 1월부터 혜택을 전면 확대해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세부터 7세까지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온종일 아이돌봄센터 역시 민선 8기의 대표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원 후 돌봄이 필요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간식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민선8기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복지 정책의 앞장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아동을 키우는 가정 이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골농협, 송동지점 주유소 준공

남원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은 지난 2일 송동지점이 주유소를 신축해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춘향골농협은 1999년 5개면 농협이 합병하면서 각 면에 유류취급소를 운영하다 금지면, 대강면 2개 면만 주유소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유소가 없는 면은 조합원이 유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12면의 유류탱크 용량으로 시설해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고 경쟁력



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조합원의 면세유 및 과세유류 구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